

# 안전과 문화의 조화로 무재해 준공을 이룩

- 두산건설 대구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 -

취재 | 최종덕 기자





▲ 안전관리팀과 파트룸링은 매일 현장 점검으로 시작하고 현장점검 ▲ 초고층 아파트 현장에서 배제할 수 없는 추락재해를 “대구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 ▲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으로 무재해를 건설하는 사람들로 마무리한다.

대구시의 노른자위 땅하면 수성구 범어동, 4년전 이 곳에서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사업이 시작됐다. 당시 8.31 부동산 대책 이후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서 대구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은 대구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이목을 집중받았다.

착공 전 입지 조건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며 차별화 된 상품 개발로 관심을 모았다면 지금은 안전을 바탕으로 고품질 아파트 건축으로 그 명성을 높이고 있는 대구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은 지하 7층 지상 54층 9개동 1,494세대 건축이 한창이다. 해발 255m의 높이에 연면적 503,076㎡의 현장, 최대 규모답게 하루 출력인원에 있어서도 평균 1,100여명이고 최고 피크일 때 1,500여명의 출력인원을 보일 만큼 큰 규모의 공사현장이다. 규모가 큰 만큼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 또한 많지만 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및 근로자들이 무재해를 이끌어가며 무재해 준공을 향해 한발 한발 다가선다.

### 안전은 문화, 무재해 건설현장의 시작

최근 경기가 어렵다보니 원가 절감 차원에서 공사 진행이 빨라지고, 이로 인한 바쁜 업무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발주되는 공사현장은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산업재해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도 이를 잘 증명한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대구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에서의 무재해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내 단일 규모로 최대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성공적인 무재해를 이룩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 이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금년 제4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개최된 “무재해성공사례발표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수현장 선정 또한 이들의 안전관리 노하우에 대한 공감을 더하게 한다.

“변화하는 사람, 변화 있는 현장”을 추구하며 “안전은 문화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소 딱딱한 안전관리가 아닌 부드럽고 마음으로 다가서는 안전을 펼치고 있는 대구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의 안전관리의 비결은 다름아닌 새로운 안전문화였다.

### 선진안전문화를 추구하는 두산건설의 안전

두산건설의 안전방침은 “인본주의 경영을 통한 선진안전문화 정착”, 근로자의 마음속 깊이 있는 안전의식을 깨내어 무재해 현장을 만드는 것, 이것이 두산건설의 선진안전문화다.

여기에는 크게 4가지로 대표할 수 있는데 그 중 첫번째는 국내 최초로 시행했던 "멘토링 활동"이다. 감성안전의 "휴먼퍼스트"의 일환으로 월회 실시되는 멘토링 활동시간에는 진솔한 이야기가 오가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참여하는 안전활동이 전개된다.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리감독자가 멘토가 되고 현장근로자들이 멘티가 되어 안전에 있어 관련사항이 이 자리에서 논의된다. 논의되는 것은 작업하는데 있어서의 안전뿐만 아니다. 현장생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사까지 서로간의 마음을 열고 나누는 이야기에서 이들은 한가족이 된다.

두번째의 DHS 가이드라인 준수, 두산그룹 차원에서 강력한 DHS를 바탕으로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했다. 계층별 전문성을 고려해 안전전문지식이 축압된 도사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 가이드라인만 지킨다면 건설현장에서 지켜야할 안전규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며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다.

세번째는 "나부터 안전한다" 운동이다.

안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재고시켜 현장 근로자 스스로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실천 분위기 조성하고 함께 불안전행동을 바로 잡는다. 여기서는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들의 숙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안전기강이 잘 잡힌 것으로 볼 때 직원들과 관리감독자들이 "나부터 안전한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두산건설만의 안전활동시스템인 "9 to 5 시스템"은 매일 아침 9시에 현장소장을 비롯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이 금일 작업 내용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들에 대한 최선의 개선대책을 세워 현장에 적용시키고, 오후 5시가 되면 위험요소들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날 있을 정보를 나눈다.



이 창 현 현장소장

### 안전은 문화입니다.

안전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다소 딱딱한 안전관리로는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건설현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문화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휴먼퍼스트, 9 to 5, 나부터 안전한다 운동 등이 안전을 문화로 승화시키려는 우리 두산건설의 노력들입니다. 여기는 사랑, 화합, 배려와 같은 감성적인 요소가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관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 바로 재해 없는 현장의 첫걸음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위상이 높을 수록 무재해 무사고가 더욱 가까워 진다는 사실을 두산건설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 또한 근로자를 지도하고 감시하는 차원이 아닌 안전문화를 바탕으로 근로자를 내 부모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한 생각으로 일하고 모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내 집을 짓는 정성으로 최선을 다 하는 최고의 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 영 식 안전대리

### 모든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와 안전교육만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모든 건설현장은 무재해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수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보다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실정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산건설이 "인본주의 경영을 통해 선진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안전관리 방침을 정하고 근로자와 함께 마음 속에 있는 안전의식을 꺼내어 모든 근로자가 역지로 하는 안전이 아닌 스스로 하는 안전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입니다.

모두의 마음 속에 안전이 자리함으로써 스스로 하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려진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에서도 감성안전과 같이 마음속의 안전문화를 바탕으로 현재 무재해 4배수를 달성했고, 준공시기인 연말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무재해 목표 5배수 달성과 더불어 무재해 준공이라는 금자탑을 쌓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고, 작업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마찰도 상당히 개선시켰다.

### 재래형재해, 대구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은 용납하지 않는다

국내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의 현장이다보니 위험요소가 없을리 없다. 또한 한창 마감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에서는 마감공정 특성상 중대재해에 대한 노출보다 사소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사소한 안전사고에서부터 중대재해에 이르기까지 이 곳 현장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 낙하, 전도와 같은 재래형 재해에 대한 예방은 더욱 확고하다.

장비, 기계 및 기구에 있어서는 월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외에도 유해위험기계기구 점검주간을 정해 안전사고의 개연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동용 수공구에 대해서는 자율점검대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유지한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동고소작업대는 현장에 입고 되는 순간부터 방호장치 부착은 기본이고 사용자는 자체에서 시행하는 운행시험을 통해 통과된 사람만이 운행이 가능하다.

### 인간미 있는 현장관리로 무재해 준공 맞이

올해 초 타 현장에서 준공을 한 달여를 앞두고 외부준공청소 근로자가 달비계에 탑승하려다 추락사 망한 사고 사례는 대구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 사람들의 자극제가 되었고, 무재해 준공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시켰다. 공정 또한 비슷한 시기라는 점은 오히려 교훈이 되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착공 이래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다는 점도 무재해 준공의 의지를 확실히 하는 요소다. 앞으로 남은 준공 그날까지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구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에서는 매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오가지만 인간미 넘치는 풍부함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도·감독 대상의 근로자가 아닌 내 부모, 내 가족이라는 생각하며 무재해 준공에 박차를 가한다. 



▲ 건설현장 최초로 시작한 멘토링 활동은 감성안전을 시행하는 어느 현장을 가든 볼 수 있는 활동으로 건설현장 새로운 안전문화로 자리잡고 있다.